

[기획] >> 3면
우리학교의 배리어 프리는?

[심층] >> 7면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사회] >> 8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물] >> 12면
임대근 우리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를 만나다



지난 1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56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이룸'과 글로벌캠퍼스 제43대 총학 '외대의 봄'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상반기는 양 캠퍼스 총학이 마주해야 할 과제
가 늘어나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룸과 외대의 봄이 내세웠던 공약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양 캠퍼스 총학의 상반기기를 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사진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포르투갈어과, 포르투갈어 영화제 개최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사이
버관 대강당에서 '포르투갈어 영화제'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5월 5일 '세계 포르투갈어의 날'을 맞아 진행됐다. 이번 영화제에선 포르투갈어를 주제로 한 아메리카아프리카아우렐 세 개 대륙의 영화가 상영됐다. 선댄스영화제(The Sundance Film Festival)와 소피아 국제 영화제(Sof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등 세계 유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세 편의 영화 △세컨드 마더(The second mother) △고양이는 현기증이 나지 않아(Cat don't have Vertigo) △더 그레이트 킬라피(The great kilapy)가 선정돼 상영됐다.

영화제는 △세컨드 마더△고양이는 현기증이 나지 않아△더 그레이트 킬라피 순으로 상영됐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은 세컨드 마더로 2015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 연기상과 베를린국제영화제(Berlinale)에서 파노라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여러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아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모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엄마란 단어를 중심으로 한 감동이란 주제를 전하고

있다. 그 다음 소개된 작품은 고양이 현기증이 나지 않아이다. 이 영화는 소피아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남자연기상△여자연기상△작품상 등 9개 부문을 수상했다. 작품은 73세 여성 '호자'와 18세 소년 '조' 사이에 펼쳐진 나이를 극복한 우정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현대 포르투갈 사회를 진솔하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영된 작품은 더 그레이트 킬라피다. 이 작품은 △브라질△앙골라△포르투갈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1960년대 앙골라 사회를 뒤집은 실제 사기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으며 현대의 사기꾼 '주앙지뉴'의 삶을 그린 영화다. 정치 활동에 무관심했던 인물이 인종차별과 포르투갈의 식민통치에 맞서 활동가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현성민(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다양한 장르의 의미 있는 영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우리학교, 유누스엠레 터키문화원과 '한국·터키 수교 65주년 기념 사진전' 공동 개최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에서 우리학교 도서관과 유누스엠레(Yunus Emre) 터키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터키 수교 65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이 개최됐다. 사진전은 △유누스엠레 터키문화원에서 준비한 사진전 영상 시청△오종진 유누스엠레 터키문화원 원장(이하 오 원장)과 조희문 우리학교 도서관 관장(이하 조 관장)의 개회사△에르친(Ersin Ercin) 주한 터키 대사과 장태영 우리학교 재무대외부총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터키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세 번째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다. 그 후 1957년 3월 8일 우리나라와 터키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됐으며 현재까지도 '형제의 나라'로 불릴 만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전은 총 50여 점의 사진을 터키 국영 통신사 아나톨리아(Anadolu)로부터 전달받아 전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조 관장은 "우리학교 도서관은 1978년에 개관해 2020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단순한 정보공간을 넘어 세계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며 우리학교 도서관이 열린 정보·문화의 공간으로 발전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이번 사진전이 양국의 깊은 우정을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전을 공동 주관한 오 원장은 "우리학교 도서관에 양국 우호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대사 사진 50점을 전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 간의 형제애는 물론 학내 구성원의 터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2022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2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7 ~ 02.23	03.20	04.08	04.22
2회	04.28 ~ 05.04	05.29	06.17	07.01
3회	08.04 ~ 08.10	09.04	09.23	10.07
4회	10.06 ~ 10.12	11.06	11.25	12.09

※ 원서접수 마감일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시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동대문구 대학 연합체 ‘동행’,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합동 토론회 개최해

지난달 28일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서울시립대) 미래관 대강의실에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제54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KHUPlay’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56대 총학 ‘이룸’ △서울시립대 제58대 총학 ‘내일’의 연합체인 ‘동행’의 주최로 진행됐다. 구청장 후보자론 이필형 국민의힘 후보자(이하 이 후보자)와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이하 최 후보자)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후보자 모두발언 △정책 질의 및 토론 △참가자 자유토론 △교내 언론사 백브리핑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류창현 동행 위원장 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의 권리 증진과 의견 개진을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합동 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최 후보자는 “대학생과 함께 청년문제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역시 “동행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해 감회가 새롭다”며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젊은이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대학별 정책 질의 및 토론은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우리학교 순으로 각각 두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자의 총평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 총학은 동대문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확대와 여성 대학생으로 이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합동 토론회

전을 위해 보안등 설치를 확대해 거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곧이어 이 후보자는 청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대문구

뤄진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대학가 여성 1인 가구 특별순찰’ 강화를 제안했다. 최 후보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동대문구 대학생이 학생증을 제시하면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성 1인 가구의 안

에 많은 식물을 심어 거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 총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공해 저감을 위한 저상버스와 전기버스를 도입할 것과 학생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역학과 학교를 잇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고려대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는 △고려대 버스노선 확충 △제기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재학생은 △길고양이와의 공존 방안 모색 △동대문 청년지원센터 ‘동대문 오랑’ 확대 운영 △플라스틱(plastic)과 프라블럼(problem)의 합성어인 노 플라스틱 노 카페 도입을 통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제안했다.

한편 동행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동대문구 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 의지 확인 △동대문구 소재 대학생 의견 전달을 통한 지방선거 내 대학생 의제 활성화 △선거에 대한 관심 증대를 통한 20대 투표율 증가 △철저한 후보자 검증 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제8회 세계실크로드 연맹 총회 개최해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우리학교에서 ‘제8회 세계실크로드 연맹(SUN) (이하 실크로드 연맹)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캐나다의 26개 대학교가 연합해 두바이에 설립한 ‘두바이캐나다대학교’(Canadian University Dubai)와 우리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선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기술 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과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해 총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실크로드 연맹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와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카포스카리 대학교(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와 실크로드 연맹 회원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물을 주제로 한 비디오 제작 경시대회 △마르코 폴로·베니스·실크로드를 주

제로 한 T-shirt 제작 경시대회 △사국의 탈과 유리공예에 관한 논문 경시대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창립총회 이래 지금까지 6년에 걸쳐 의장대학으로 임기를 수행해준 우리학교에 대한 △감사패 전달 △연말까지 임시의장대학 선정 △평생 명예의장대학으로의 추대 등이 이뤄졌다.

황성돈 우리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이하 황 교수)는 “우리학교에 연맹의 학생기구인 실크로드 대학생 연합 지부가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이번 해 실크로드 연맹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연맹의 의장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인 외국의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비해 우리학교 학생의 참여는 아

직 저조하다”며 우리학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황 교수는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기회와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현재 실크로드 대학생 연합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의 지문기구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연맹을 비롯해 우리학교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 강서현(서양어·포르투갈 21) 씨는 “우리학교가 세계 실크로드 연맹 총회를 주관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세계적인 행사에 대한 우리학교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했다.

한편 실크로드 연맹은 30여개의 육·해상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나라가 참가하고 있으며 순수한 △비영리 △비정 치 △비종교적 성격을 지닌 대학 간 국제기구다. 현재는 실

크로드 상의 28개 나라 63개 도시에 있는 81개 대학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크로드 연맹은 실크로드 상에서 △나라 △민족 △문화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반문명적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단 대학교 지식인들이 시대 인식을 공유하며 형성됐다. 또한 △개인 △나라 △민족 간 차이는 △역압 △차별 △착취의 이유가 아닌 아름다움의 핵심 요소란 사실을 실크로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이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우리학교 미디어외교센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

다음 달 11일까지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산하 미디어외교센터에서 ‘글로벌 이슈로 국제뉴스바로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언구재단 인문사회중점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문화상점 이문일공방’에서 진행된다.

8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주차 ‘외신 보도 현황과 문제’ △2주차 ‘동남아시아 현지 보도를 통해 본 미얀마 민주화 운동’ △3주차 ‘터키 언론이 보도하는 우리나라’ △4주차 ‘우리나라가 보도한 중동의 모습과 현지 보도의 온도 차’ △5주차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디어의 역할’ △6주차 ‘아프리카에서 에볼라(Ebola virus)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보도하는 방식’ △7주차 ‘유럽 사회의 난민 보도 경향’ △8주차 ‘파리 테러를 통해 본 국제뉴스의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이뤄졌다. 지난 달 30일 3주차 강연자로 나선 오종진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는 “터키언론이 우리나라를 보도할 때 특파원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외신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언론이 우리나라를 어떤 시각에서 보도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달 23일 미얀마 민주화 운동 보도를 주제로 한 강좌를 수강한 양상훈(상경·국통 21) 씨는 “강의를 들으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태국 언론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졌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맡은 이은별 우리학교 미디어외교센터 전임연구원(이하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보도되는 국제뉴스가 영미권 외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엔 여러 명의 우리학교 특수외국어 전문가가 강연을 맡았다”며 “해의 현지 매체를 원어로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생소한 해외 뉴스를 쉽게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돼

지난달 30일 우리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2년~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지난 사업에 이어 유형 I 로 선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유형 I 로 선정된 70개 내외의 대학교는 총 525억 원을 지원받는다. 우리학교는 전형 운영 기본역량인 △고교교육 연계성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예산계획 △학생 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유형 I 에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이번 해 정부로부터 9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9년 연속 고교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리학교는 추후 △고교교육 내실화 △대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수험생의 입시부담 완화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는 지난 달 9일부터 시작한 고교방문설명회 및 교사 간담회를 비롯해 오는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교사 권 퍼런스 △모의면접 △전공탐색 △정보 소외지역 지원 프로그

램 △Hufs 지원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고교 학점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과의 협력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교육청 평가위원회가 지원사업 신청대학 101곳의 ‘2022년 사업 운영 계획’과 ‘2023~2024학년도까지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평가했다. 대학당 평균 7억 원이 지원되는 유형 I 인 우리학교를 비롯해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수도권 35개 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비수도권 42개 대학교가 선정됐다. 이에 조혜미(인문·사회 22) 씨는 “우리학교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년 연속으로 선정된 만큼 대입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4.25(월) ~ 05.06(금)	2022.05.30(월) ~ 06.10(금)
고사장 발표	05.12(목) 15:00	06.16(목) 15:00
면접전형	05.14(토) 10:00 예정	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6(목) 15:00	06.30(목) 15: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곧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동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문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 -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교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배리어 프리, 모두의 편리를 위한 학교생활의 시작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움직임을 뜻한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사회과학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등 학교 내 시설 개편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 노후화 문제와 통학 시 이동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배리어 프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학교 입학 전형에 장애 학생 특별 전형이 마련되지 않아 근본적인 시설 개편이 어렵단 문제를 가진다. 모두를 위한 학교생활을 위해 △양 캠퍼스(이하 양 캠프) 시설 점검△현재 우리 학교의 시설 개편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양 캠퍼스 통학로는 안전한가

외대학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우리학교 설캠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통학로의 △대중교통 이동 환경△보도블록 설치 여부△횡단보도 음향 신호기 설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설캠은 외대앞역부터 정문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글캠의 경우 기숙사 정류장부터 인문경상관(이하 인경관)까지 살펴봤다.

설캠의 교통 환경은 글캠에 비해 비교적 잘 마련돼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의 경우 △120번△147번△261번△273번△1222번 등 총 5대의 버스가 설캠을 지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은 회기 방면과 신이문 방면이 존재한다. 1번 출구 방향의 신이문 방면은 우리학교 정문부터 1번 출구까지 높은 경사로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찰구의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 시 휠체어에서 내려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대편 회기 방면의 경우 2번 출구로 진입해야 하는 데 계단을 이용해야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다. 더불어 계단의 경사가 급하고 높아 리프트 운행이 불가해 사실상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하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현재 △남구로역△남영역△외대앞역 총 3곳뿐이다. 외대앞역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설캠을 지나는 총 5대의 버스의 저상버스 평균 도입률은 64.8%다. 2020년 기준 △120번 버스 62%△147번 버스 71%△261번 버스 80%△273번 버스 57%△1222번 버스 54%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인다. 저상버스는 운행 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용객은 정류소에서 직접 버스 운수회사에 전화를 걸어 탑승을 희망하는 버스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

외대앞역에 내려 정문까지 걸어가는 거리엔 대부분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있다. 설캠 주변에 위치한 롯데리아 앞 횡단보도와 정문 앞 사거리의 횡단보도엔 음향 신호기도 존재했다. 그러나 설캠 변화가의 경우 곳곳에 골목길이 많아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에 대한 위험 신호가 없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글캠은 지하철역의 부재로 대부분 광역버스를 이용해야한다. △1117번△1150번△1500-2번△1303번 등 다양한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저상버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캠퍼스 내의 셔틀버스도 같은 상황이다. 글캠 정문에서 가장 끝에 위치한 인경관까지 도보로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캠퍼스가 넓어 20분 주기로 학교 안을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저상버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캠퍼스 내 도보 시설에 대한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후생복지관(이하 후생관)부터 인경관까지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급해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 △교양관△어문학관△인경관 건물로 올라가는 길 역시 급한 경사로 휠체어가 오르기 어려운 상태다. 이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글캠 내 전체적으로 점자블록이 설치돼있는 편이지만 도로 중간마다 점자블록이 끊긴 인도도 존재했다. △교양관부터 학생회관△백년관부터 기숙사 앞 버스 정류장△정문부터 기숙사까지의 거리에선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캠퍼스 내 횡단보도엔 음향 신호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신호등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청각에 의존해 건너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학교 측의 노력과 현황

지난해 설캠은 사회과학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14개의 건물 중 △교수회관△국제학사△도서관 등 9곳에 엘리베이터가 존재한다. 글캠엔 지난해 해와 마찬가지로 19곳 중 10곳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다. 그러나 10곳 중 7곳은 기숙사 흡스돔(Hufs Dorm) 4개동과 국제사회교육원 3개동이 며 나머지 3곳은 △백년관△자연과학관△창업보육센터다.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건물 중 백년관과 자연과학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어 학생들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설캠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직원 A 씨는 “건물 전체에 개략적인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글캠 제43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외대의봄’의 공약이었던 교양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해 글캠 시설관리팀은 이번 해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 전했다. 글캠 총괄지원팀은 셔틀버스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선 현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에 관련한 요구가 없었다며 “버스 교체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청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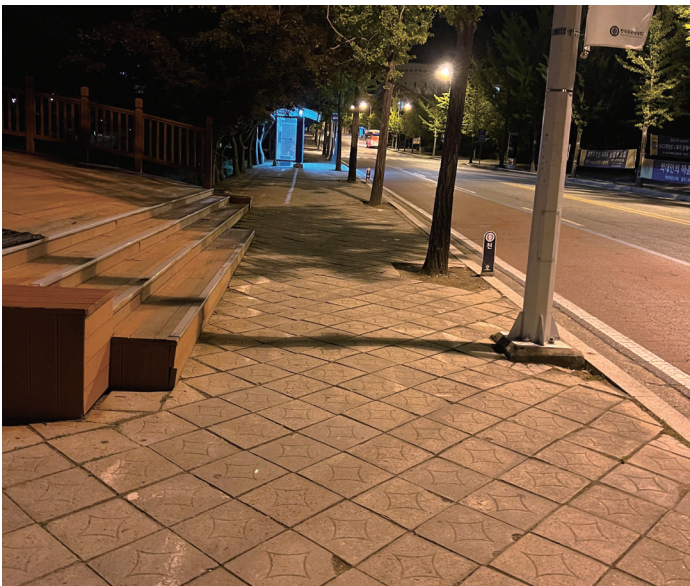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수동적인 운영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설캠과 글캠



▲설캠 외대앞역 신이문 방향 개찰구



▲글캠 어문학관 경사면



▲보도블록이 없는 글캠 인도

에 각각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우리학교 소속 기관으로 편성돼 자체적인 시설 개편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자체적인 배리어 프리 시설 관련 안전성 검사 및 개편안 설정 여부에 대해 설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교 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글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캠퍼스 내 보도블록 미설치는 몰랐던 사실이다”며 “시설관리팀에 연락해 추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회관 경사로 마련△도서관 1층 장애인 화장실 마련△후생관 학생식당 경사로 설치 등 학생의 요구가 들어오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캠프 모두 문제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설을 개선하기보단 재학생의 요구가 계속되면 그 사항을 부분적으로 개편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학교 입시제도에엔 장애 학생 특별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시행한 외대학보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학교 입학처는 장애 관련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장애 학생 특별 전형을 신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입학해야 하기에 우리학교에 입학하는 장애 학생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약 200명 정도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타 대학들과 달리 현재 우리학교는 설캠 5명, 글캠 2명으로 총 7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다.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수가 적어 관련 예산도 적게 편성된다. 이에 장애 관련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 마련과 장애학생 특별 전형의 부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입학처 교직원 B 씨는 “여전히 장애학생 특별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며 “시설이 개선된다 해도 당분간 특별 전형 마련은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부에선 이번 해 장애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대학의 전체 모집 인원 중 △농어촌△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해야 한단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학교의 장애 학생 특별 전형 마련과 관련 복지 사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모두를 위한 학교를 위해서

서울 주요 11개 대학 중 장애 학생 특별 전형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우리 학교뿐이다. 우리학교의 고른기회전형의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서해 5도 거주 학생이 포함된다. 고른기회전형 대상에 장애 학생도 포함되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 학생으로 한정된다. 우리학교를 제외한 10개의 대학에선 장애 학생 특별 전형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거나 고른기회전형 중 장애 학생을 일정 인원 선 발하며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 10개의 대학은 관련 시설 마련과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비장애인 학생도 장애학습지원센터로 이동지원차량을 신청하면 서울의 인사캠퍼스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도 특별이송지원차량을 마련해 캠퍼스 내에서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이번 해 당선된 박정은 총장이 지난해 총장 선거 당시 외대앞역부터 정문까지 운행하는 특별 차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양 캠프 총학에서도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 설캠 제52대 총학 ‘이봄’은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요구’와 ‘동대문구청과 외대앞역부터 정문까지 안전한 통학 거리 조성 요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민지(사회·미디어 19)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계획 수립 및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건물별 이동 불편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요구안을 작성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현(통번역·독일어 19) 글캠 총학생회장은 “이번 해 공약이었던 교양관 엘리베이터 준공을 시작으로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리어 프리가 이뤄진 통학 시설과 건물의 부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이어지는 문제다. 경사가 급하고 저상버스 운행이 없는 글캠에선 비장애인 학생이 다리를 다친 경우 통학이 어려워 유교결석을 내거나 휴학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인대 과열로 수술한 우리학교 글캠 재학생 C 씨는 “자가용으로도 통학이 어려워 휴학을 신청했다”며 “광역 저상버스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학교로의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배리어 프리가 이뤄진 통학 시설 마련 및 건물 마련은 우리학교 학생 모두를 위한 방향이다. 비장애인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 학기를 되돌아보다

지난 1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56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이름’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제43대 총학 ‘외대의 봄’이 출범했다. 이로써 양 캠퍼스(이하 양 캠퍼스) 총학은 이번 해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주체가 됐다. 그러나 이번 상반기엔 △계절학기 요급 인상 및 학제개편 등 급진적인 학칙 개정△

대면 활동 재개△새로운 총장과의 소통 등 양 캠퍼스 총학이 마주해야 할 과제가 늘어나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름과 외대의 봄의 공약 이행 상황을 살펴보며 양 캠퍼스 총학의 상반기기를 돌아보자.

◆ 설캠 총학 ‘이름’의 상반기

지난달 26일부터 27일 2일간 설캠 대면 축제 ‘행아웃(HANGOUT)’이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설캠 총학이 내건 공약의 일환이었다. 설캠 총학은 출범 당시 총 36개의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행 완료된 3개의 공약을 제외하고 현재 64%의 공약에 대해 이행 중이다. 주요 공약은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분기별 찾아가는 총학생회△전임교원 확충 및 강의 추가개설 요구△총장 간담회 등이다.

총학 후보 당시 설캠 총학은 총장과 학생 간 직접적인 소통 게시판을 신설하고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설캠 총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6개 요구안을 토대로 ‘2022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성적평가 방식 기준 완화△등록금 부담 완화△취·창업 지원 기회 확대△학교 시설 개선 등이었다. 간담회 관련 자료와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설캠 총학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게재됐다. 이에 대해 이민지(사회·미디어 19)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이 회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요구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논의의 진전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변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우(사회·행정 21) 씨는 “총학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시도한 점과 공약이행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공약 이행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 점이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한편 설캠 총학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정책’ 분야였다. 교육정책 분야에선 △공공인재개발원 지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분기별 공약 이행 보고 및 만족도 조사 보고△신입총장 공약 및 9대 학생정책 요구안 이행 분기별 모니터링△전임교원 확충을 통한 강의 추가 개설 요구△편입생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 문제 개선 등 6개의 공약 중 총 5개의 공약이 현재 이행 중이다. 설캠 총학은 학생의 교육 권리 보장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전임 교원 수의 부족으로 인한 강의의 대형화 및 강의의 질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임 교원 확충을 통한 강의 추가개설을 요구했다. 또한 이전 총학에 이어 원어 강의에 한해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등 성적 평가 방식의 변화도 추구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권연대’ 분야는 이행률이 낮았다. 그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성평등센터 운영 규정 보완△배리어 프리(Barrier-Free) 캠퍼스 조성△학식 선택지 다양화 등의 인권연대사업은 단기적 달성을 넘어 장기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중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이행 현황에 대해선 배리어 프리 캠퍼스 조성 과 학식 선택지 다양화와 관련해 학우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전과 같은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식 선택지 다양화 문제에 대해 “안전적인 식단 보장을 위한 수요확보를 우선시하겠다”고 전했다.

설캠 총학의 상반기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김성아(아시아·아랍어 22) 씨는 “지난 상반기엔 학칙개정 등 학교 측과 대립하는 일이 많았음에도 공약 이행도가 높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반면 유다은(아시아·마인어 21) 씨는 “공약 이행율은 만족스럽지만 정작 학생들이 기대한 행사였던 축제의 규모나 질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 글캠 총학 ‘외대의 봄’의 상반기

글캠 총학은 선거 당시 △교양관 시설 개선△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 △코딩 튜터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글캠 총학은 ‘우리 함께, 코딩해봄’이란 코딩 스터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현재 1학년 필수 교양으로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기초’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관해 지난해 12월에 열린 글캠 제 43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에선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면으로 진행



▲설캠 2022 총장과의 대화 (출처: 설캠 총학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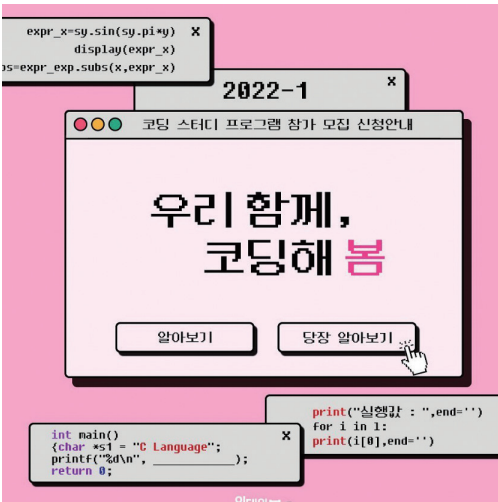
▲설캠 공약이행평가 결과 보고 (출처: 설캠 총학 SNS)

될 시 장소와 장비의 구축이 어려울 거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글캠 총학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학생들이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인프라 구축보단 튜터링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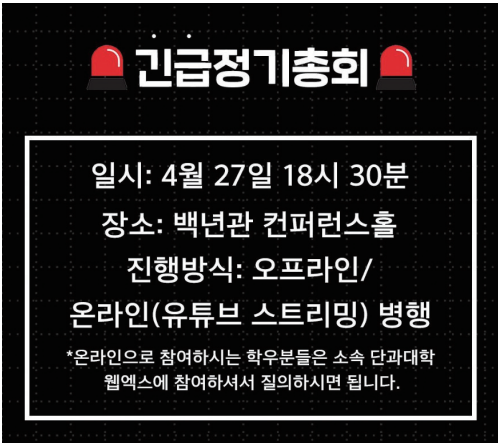
한편 글캠 총학은 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했던 학교 측의 불통 행정에 대한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4월 △글캠 총학제10대 국제지역대학 학생회 FOR:REST△제14대 통번역대학 학생회 '캔버스'는 '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총장과 학생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주요 질의 사항은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조치(이하 폐과조치)에 대한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학위증△3전공△AI융합대학 등의 문제를 다뤘다. 학교 측은 폐과조치 관련 핵심 사안인 학위증에 대해 지금 당장 설캠 학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을 전했다. 글캠 총학은 복수전공제도와와의 차이점이 애매해 학생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한 3전공 제도에 대해 학교 측에 선택 표기 및 졸업 유예 가능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폐과조치안 논의 기간엔 간담회와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글캠 총학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황찬일(국제지역·프랑스 18) 씨는 “대면 전환과 총장교제 등의 요소로 인해 많은 환경이 바뀐 상반기임에도 학생의 의견이 학교 측에 많이 피력된 것 같다”며 “소통과 즐거움을 목표로 한 글캠 총학의 상반기가 일정 수준 이상의 목표를 이뤄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 학제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주된 우려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장학금 수혜 중단 우려를 비롯해 폐과조치 대상 학과에 제기된 전라연어융합대학 신설 등의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하지만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해 우리 학교가 부실대학이란 자극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을 공식 SNS에 게시한 것은 부적절했던 학생사회 내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양관 시설 개선과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공식 유튜브(YouTube)와 같은 SNS 활성화를 통해 공약 진행 상황 및 총학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를 진행하겠단 약속과는 달리 현재 공식 유튜브와 홈페이지엔 관련 정보가 게재되지 않다. 이에 대해 이영준(응인·21) 씨는 “현재 학생회의 운영 방식은 전체적인 공약 이행과정을 학생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 아쉽다”며 “SNS를 통한 총학 활동 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글캠 코딩 스터디 프로그램 (출처: 글캠 총학 SNS)



▲글캠 긴급정기총회 (출처: 글캠 총학 SNS)

◆ 다음학기 활동 방향

이 회장은 예정됐던 담당자의 일정이 변경돼 창업 콘테스트 및 취창업 강연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회장은 “대면으로 인해 미뤄진 일정을 방학 중에 보충해 진행할 예정이다”며 남아있는 하반기 대면 활동 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 학기에 중점을 두거나 우선으로 계획 중인 활동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 설캠 축제인 '윈쿠아트리아 하이브 리드'를 답했다. 체계적인 기간 조율과 기획단 운영을 통해 봄 축제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 포부도 밝혔다.

글캠 총학은 대표 공약인 교양관 시설 개선과 카셰어링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오경현(통번역·독일어 19)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오 회장)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양관 엘리베이터는 이번 해 안으로 완공될 예정이란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행하지 못한 타 공약에 대해 오 회장은 “1학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행되지 못한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남아있는 하반기에 양 캠퍼스 총학이 남은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학내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캠퍼스 축제 ‘행아웃’, 그 열기를 돌아보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총 2일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대면 축제인 행아웃(HANGOUT)이 열렸다. 이번 축제에선 △버스 운영△동아리 박람회△야외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진행됐다. 3년 만에 진행된

대면 축제에선 많은 학우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3년 만의 대면 축제△축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반응△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마스크를 벗고 진행된 축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설캠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오랜만에 치러진 대면 축제 행아웃이 진행됐다. 이민지(사회·미디어 19)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이 회장)은 “학내 구성원 모두가 대면 행사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단과대학 및 학과의 버스 운영△동아리 박람회△외부 푸드트럭 등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의 ‘미고랭 라면’△인도어과의 ‘탄두리 치킨 콤파’△진로취업지원센터의 ‘진로·취업 상담 및 상품 뽑기’ 등의 음식 및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미고랭 라면 부스를 진행한 장도은(아시아·마인어 21) 씨는 “학과의 특성을 살려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미고랭 라면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와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진로취업지원센터의 체험 부스에 참여한 문유민(아시아·아랍어 22)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잘 몰랐던 진로취업센터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동아리연합회가 진행한 동아리 박람회(이하 박람회)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국제학사 앞과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박람회는 총 35개의 △

따르면 축제에 참여한 학생 중 60%가 ‘행사의 구성 및 진행 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 중 50%가 ‘동아리 박람회에서 진행한 콘텐츠에 대한 만족’을 택했다. 또한 50%의 응답자는 ‘잔디광장에서 진행한 학생들의 버스킹과 동아리 공연’을 꼽았다. 대면 행사에 참여한 소경준(사회·행정 21) 씨는 “오후에 진행된 학생들의 공연 구성이 매우 다채로웠다”며 “공연을 관람할 때 학생들의 공연 질서도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다. 이어 ‘축제에 섭외된 가수 라인업’과 ‘각 학과 및 단과대학이 진행한 각종 부스의 다양성’이 각각 40%와 38%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축제의 구성 및 진행방식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40%에 달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약 88%는 ‘잔디광장 공연장 입장 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꼽았다. 축제 당일 우리학교 학생이 잔디광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선 설캠 총학의 부스에서 학생증을 확인한 후 발급된 팔찌를 갖고 있어야 했다. 이 절차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설캠 총학의 학생증 검사가 철저하지 않아 타 학교 학생도 우리학교 학생의 도움을 받아 몰래 공연에 참여했다”며 “26일 받았던 팔찌를 27일에 그대로 차고 온 학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학생들이 공연 대기 시간 동안 자유롭게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장권을 배부하는 차원에서 팔찌를 준비했다”며 “다음번 축제를 기획할 시 우리학교 학생이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한편 설문조사에서 ‘더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최소 1~2달 전 학과 및 단과대학에 부스 준비 관련 사전 공지 후 충분한 준비 기간 마련’과 ‘공연장 내 음향 및 관람 환경의 개선’이 각각 58%와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버스킹 및 중앙동아리 공연 등 학생 참여 공연의 다양성 확대’와 ‘우리학교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동일하게 37.6%를 기록하며 학생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주영(아시아·태국어 21) 씨는 “이번 축제에서 특히 다양한 국가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부스가 인상 깊었다”며 “다음 축제에선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이후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대학교의 일상 회복 추진 방안’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교에서 일상 회복 방안이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교는 5월을 맞아 대면 축제를 개최했다. 일부 대학은 축제를 통해 학생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상생을 도모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한국교통대학교(이하 한국교통대)의 축



▲단과대학 및 학과의 부스에 참여한 학생들



▲뮤지컬동아리 '라온'의 부스



▲오후 야외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

공연분과△생물문화분과△응용예술분과△인문사회분과△종교봉사분과△체육분과 소속 동아리가 2일간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공연 분과 소속 뮤지컬 동아리 ‘라온’은 ‘뮤지컬 퀴즈’ 및 ‘라온의 역사 알아보기’ 등의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다. 노상원(영어·ELLT 20) 라온 회장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학교 동아리 문화의 부활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람회에 참여한 김효정(중국·중외통 21) 씨는 “그간 행사가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교 내 동아리에 대해 잘 알 수 없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동아리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오후 5시부터 10시 반까지 잔디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중앙동아리 공연△가수 공연이 진행됐다. 힙합동아리 ‘후스 도비(HUFS DOVY)’ 소속 정수민(경영·21) 씨는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오직 동아리 건물 내에서 공연하거나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무대에서 학생과 소통하며 공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답했다. 오후 9시부터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가수 무대엔 가수 ‘미노이’와 밴드 ‘잔니비’가 각각 26일과 27일에 공연했다.

◆행아웃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축제를 더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약 66%의 응답자는 ‘단과대학 및 학과별 축제 부스 신청 기한의 촉박함’을 이유로 택했다. 설캠 총학은 축제 2주일 전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 부스 참여 신청을 받았다. 실제로 이번 축제에선 서양어대학 소속 전체 학과와 독일어교육과를 제외한 사범대학 소속 학과 등이 부스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찬우(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총학과 동아리에서 준비하는 부스 콘텐츠의 종류가 미리 공유되지 않았다”며 “부스를 위해 학과 및 학부가 준비한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학과와 겹쳐 참여를 고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인애(서양어·이탈리아어 20) 씨는 “각 단위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모든 단위가 부스에 참여했다면 더 풍족한 축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며 “특히 각 나라의 특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서양어대학에서 참여한 부스가 없어 아쉬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잔디광장 내 공연장의 음향 및 관람 환경의 불편△동아리 공연 관련 라인업 및 일정 미공지△축제에 섭외된 가수의 다양성 및 공연 시간 부족이 각각 △65%△33%△22%를 기록했다. 특히 야외 공연에 대한 학생들의 아쉬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보경(상경·국통 21) 씨는 “무대 단상이 낮아 6시 이후 잔디광장에 간 학생은 가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며 “다른 학교와 달리 가수를 볼 수 있는 전광판이 없어 노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축제를 기획하며 가수 섭외 및 우선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무대 단상과 펜스 설치 방향을 바꿨다”며 “학생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후 진행할 행사에선 이를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제에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캠퍼스 문화행사’가 개최됐다. 지역 주민은 노래자랑 및 각 학과의 부스 참여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안형환 한국교통대 학생처장은 “대학은 지역과 공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지역과 대학이 화합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다양성을 추구하는 축제’를 구호로 정한 학교도 존재했다.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는 축제 전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통해 요구안을 모은 후 공연장에 ‘배리어 프리존(Barrier free zone)’을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정승원 중앙대 학생은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위해 이런 절차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3년 전 캠퍼스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학내 구성원은 오랜만에 돌아온 대면 행사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대면 행사를 즐기기 위해선 구성원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에서의 후회 없는 날들

폴란드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내가 배우는 언어를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학부 수업 외엔 폴란드어를 접하기 어려웠다. 이에 현지에서 직접 폴란드어를 접하고 실력을 기르고자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처음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학연수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폴란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었기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 3월부터 6월까지 우리학교 '7+1 과전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의 야기엘론스키대학교(Uniwersytet Jagielloński)에서 공부했다.

폴란드에서의 삶은 대부분 여학당 일정에 맞춰졌다. 여학당에선 스탠어스독해스튜디오스문법회화 정규 수업이 진행됐다. 야기엘론스키대학교에서의 수업은 대부분 짝을 이뤄 대화하는 형태였기에 혼자서 하는 공부에 익숙했던 내겐 다소 부담이 컸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와 폴란드어로 생각을 나누며 단순히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방과 후엔 정규 수업 외에도 △말하기△심화 듣기△폴란드 문화 'Kultura' 수업도 수강했다. 특히 폴란드 문화 수업에선 많은 외국인 친구와 함께하는



외국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추천한다. 야기엘론스키대학교의 1:1 교류 프로그램인 '버디(Buddy)'를 통해 친해진 폴란드인 한국학과 친구와 현재까지도 연락하며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고 있다. 기숙사엔 주방이 마련돼 있고 식자재 또한 저렴하기에 직접 요리해 먹는다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미리 국제학생증(ISIC)을 발급하면 매일 타는 버스나 트램(Tram)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처음 폴란드에 도착했을 땐 주변 현지인의 시선에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살던 크라쿠프(Kraków)엔 동양인이 많지 않기에 그들의 시선은 온전히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됐던 것을 깨달았다.

내 어학연수 생활은 최선을 다한 후 오직 하늘의 뜻을 기다리란 의미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로 정리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 생활하는 동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학업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 폴란드에서의 모든 것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매번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주저 말고 도전해보길 바란다.

향서울(동유럽 · 폴란드어 20)

콜롬비아

<청부 살인자의 성모>

-마약, 청부 살인, 그리고 성모 마리아-



작품명: 405
청부 살인자의 성모
La Virgen de las Calles
페르난도 바예호, 2019년 8월
연말가

1990년대엔 △브라질△볼리비아△콜롬비아 등 남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에서 마약과 청부 살인이 만연했다. 마약 카르텔은 마약 밀매를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이내 공권력을 넘보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사법 체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마약 카르텔의 행위가 곧 법이 되는 무법 사회가 됐다.

콜롬비아의 작가 '페르난도 바예호(이하 바예호)'

는 1994년 발간된 책 '청부 살인자의 성모'를 통해 당시 마약 카르텔이 득세하며 무차별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던 콜롬비아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바예호는 1942년 콜롬비아 메데인(Medellín)에서 태어나 콜롬비아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를 졸업했다.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 이탈리아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1971년부터 멕시코에서 생활하다가 2018년에 콜롬비아로 되돌아오며 47년간의 자발적 망명 생활을 마쳤다.

소설의 주인공 '페르난도'의 모습은 긴 시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이후 귀국한 바예호의 모습과 닮았다. 페르난도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콜롬비아 사회가 나아졌을 거란 희망을 품고 30년 만에 메데인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고국은 여전히 마약 카르텔이 권력을 장악한 채였고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총격을 받으며 죽어 나가고 있었다. 이에 페르난도의 희망은 산산이 깨진다. 페르난도는 메데인에서 '알렉시스'란 청년을 소개 받아 그를 사랑하게 된다. 알렉시스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젊은 청부 살인자였다. 그러나 알렉시스 역시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던 청부 살인자에게 갑작스레 살해당한다. 이후로도 메데인은 폭력과 살해가 난무하는 모습을 유지한다. 결국 소설은 페르난도가 메데인에서의 생활에 허무함을 느껴 목격지도 정하지 않은 채 아무 버스에나 탑승하고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이 소설은 바예호가 마약 카르텔이 판치던 1990년대 콜롬비아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던 데에 의미가 있다. 실제 마약 카르텔의 용어를 사용해 독자가 콜롬비아 사회의 비극성에 깊이 입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이야기 진행과 표현 방식을 통해 공권력이 무너진 무법 사회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고발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은 이유 없는 살인을 일삼는 젊은이들이 성모 마리아를 섬기며 신실히 기도하는 모습이다. 살인 장면과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장면이 번갈아 나오며 콜롬비아 사회의 모순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청부 살인자의 성모를 읽으며 마약 카르텔이 권력을 잡은 사회의 잔인함과 심각성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The Unique & The Best'

⑥ HUFSS makes me special : 대한민국에 세계를 선물하다.



▲한국 최초 서반어극 공연 기사(외대학보 제54호(1961.12.5))

우리학교에선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는 슬로건에 걸맞게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동아리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교 초기엔 외국어를 연구하는 동아리가 주류를 이뤘



▲아시아어 원어 연극 '벃나무 동산'(1969.4.20.~26)

다. △노어연구회△독일문화연구회△라틴아메리카문화연구회 등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는 동아리가 활성화됐다. 이 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외국어 특강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최초이



▲독일어 원어 연극 'Götz von Berlichingen'(1973.4.28)



▲외대 최초 원어 연극 개최 기사(외대학보, 1956.04.20)

대학교 학생과 많은 일반인이 해당 강좌에 참가했다.

이런 무료 강좌가 우리 사회와 세계가 친숙해질 수 있는 학술적 계기를 마련했다면 전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학생 활동은 일반 시민에게 세계를 한층 더 깊게 이

차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단순히 외국어와 외국학을 교수하고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주축이 돼 일반인에게도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스페인어과는 1959년 7

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광성고등학교에서 매일 9시부터 무료 강좌를 열었다. 이후 스리시아어과△이탈리아어과△일본어과△중국어과도 강좌를 개설했고 타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56년 4월 20일 영어회화학회 ESS는 개교 2주년 기념행사에서 크리스토퍼 프라이(Christopher Fry)의 연극 'The Lady's Not For Burning'을 우리나라 최초로 무대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이 공연은 외국기관의 △키빈△대학교수△저명인사를 포함해 1,000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뤘다. 이후 우리학교의 원어 연극은 큰 성공을 바탕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매년 개최됐다. 불문화연구회에선 우리나라 최초 프랑스어 TV 방송곡을 공연했다. 살바베리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의 지도를 받아 완성된 이 공연은 1959년 11월 원각사에서 열렸다. 또한 1959년 독문화연구회는 원각사에서 '간계와 사랑(Kabale und Liebe)'을 공연하기도 했다. 이후 외대 원어 연극은 연달아 우리나라 최초 기록을 갱신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했다. △1961년에 공연한 스페인어 연극 '집시 여인(La Gitana)'△1963년 11월 드라마 센터에서 상연된 중국어 연극 '남여흑(藍與黑)'△1969년에 발표한 러시아어 연극 '벃나무 동산(Brimbeary cam)'은 전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연 사례였다. 이런 외국어 공연은 우리학교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우리나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학교는 세계의 여러 언어를 교육하는 기관답게 외국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학교 학생은 이런 경험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적인 세계문화 축제에 발전시키며 일반 시민의 국제 문화 이해와 교양 함양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이대로 관참은가

온라인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란 공통의 관심사나 환경을 가진 이들이 소통하는 웹사이트로 이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사회 내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다. 최근 커뮤니티 내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그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

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도 혐오표현과 관련된 게시글이나 댓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심각성△우리학교 에타 내 혐오표현△혐오표현 없는 커뮤니티 사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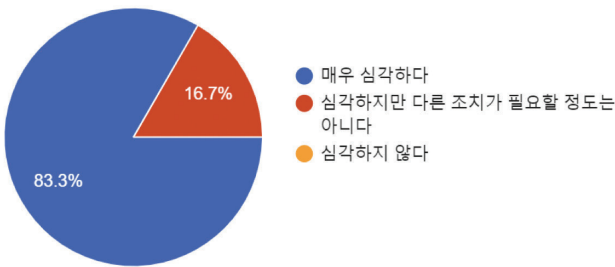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심각성

이번 해 2월 김인혁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선수(이하 김 선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선수가 평소 화장을 하고 남자를 좋아한단 거짓 소문이 퍼졌고 이에 대한 혐오표현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달렸다. 이는 김 선수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트위치(Twitch) 개인 방송 진행자 잼미님(이하 잼미님) 또한 악플에 시달리다 이번 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잼미님은 남성을 혐오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의혹 이후 혐오표현이 가득한 악플에 시달렸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유튜브(Youtube) 등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도 늘어나게 됐다. 이번 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9,000명 중 20.8%와 성인 7,500명 중 12%가 △성별△장애△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혐오를 표현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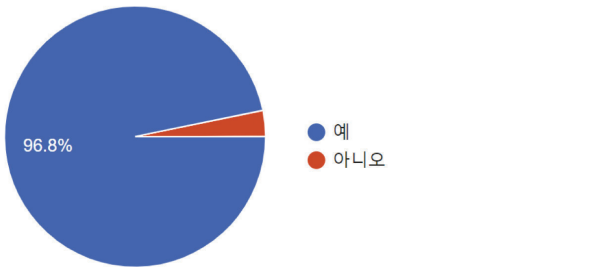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심각성은 꾸준히 논란이 됐다. 지난 2020년 10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학생이 위로를 얻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 에타에 글을 올렸지만 몇몇 이용자가 근거 없는 혐오표현의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당시 유가족은 악성 댓글 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타 내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에타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청년참여연대를 포함한 25개의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커뮤니티 내의 혐오와 차별적 표현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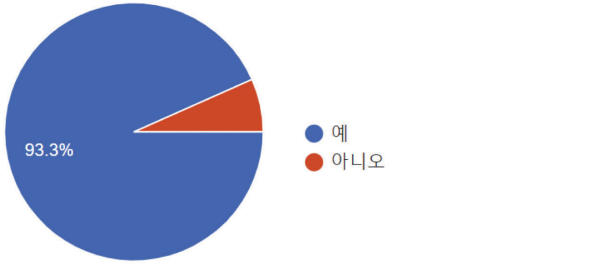
우리학교 에타 역시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23일 에타에 '현수막 훼손 제보를 기다립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 게시된 우리학교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외행성'의 성소수자 혐오 반대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겼고 이에 대한 목격자를 찾는단 글이었다. 게시글엔 '누군진 몰라도 잘 찢었네'와 '성소수자 너무 싫어' 등 성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댓글들이 달렸다. 또한 지난해 10월 외행성이 중앙동아리 가입준에 실패해 에타에 연대 요청문을 올렸을 때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댓글과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달렸다. 에타 내 게시판이 혐오표현으로 가득 찼던 때는 이번만이 아니다. 우리학교 중복학과 폐과존치 문제가 제기됐던 때도 양 캠퍼스(이하 양 캠프) 학생들이 서로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내용의 자극적인 게시글이 인기 게시판을 꾸준히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방역 수칙을 어긴 우리학교 홍보단체 '채로미'에 대한 혐오표현의 글도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냐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면서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있냐



▲지나친 혐오 표현으로 인해 에브리타임 사용이 꺼려진 적이 있냐

외대학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내의 혐오표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에브리타임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본 적이 있냐'란 질문에 응답자 중 96.8%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93%의 응답자가 지나친 혐오표현으로 인해 에타 사용이 꺼려진 적이 있냐'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정민(자연·통계 20) 씨는 "양 캠프 학생들이 서로 도를 넘는 비하 발언을 주고받는 게시물이 인기 게시판을 장악해 에타에 들어가기 꺼려졌다"며 중복학과 폐과존치 사건 당시의 에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보였다.

'에타에서 가장 많이 접한 혐오표현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양 캠프 학생을 조롱하는 혐오표현'이 50%를 차지했고 △'남녀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표현'△'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정치적 성향에 관한 혐오표현'이 각각 △20%△13.3%△10%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하냐'란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가 83.3%를 차지했고 '심각하지만 다른 조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가 16.7%를 차지했다. 유

다은(아시아-미인어 21) 씨는 "에타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심각한 혐오표현을 보게 되고 눈살이 찌뿌러질 때가 많다"며 우리학교 에타 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혐오 없는 커뮤니티 사용을 위해

'에타 내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해 학교 측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응답자 중 87%는 '엄밀한 가해자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에타 내 혐오표현을 학교 측이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은재(상경·국통 21) 씨는 "커뮤니티 활동을 저해하는 도배 혹은 이유 없는 인격 모독적 비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선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 커뮤니티 내의 특정 단어나 말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인 인권연대국은 단과대학 학생회와 공동 주최로 인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초 오리엔테이션에서 새 내기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개최된 새맛이 인권포럼에선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올바른 커뮤니티 사용을 위한 태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글캠 총학은 "아직까지 혐오표현 관련 인권교육을 진행한 적은 없지만 많은 학우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과 혐오 없는 커뮤니티 사용을 위해 혐오표현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의견 또한 존재한다. 혐오표현을 발설하고도 표현의 자유나 재미를 이유로 자신이 혐오표현을 사용했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민정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김 교수)는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표현만이 혐오표현이 아님을 강조했다. '여성은 예쁘게 차려입어야 한다'나 '장애인은 착하다'와 같은 차별하고 온건한 방식의 표현도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된단 것이다. 김 교수는 "세련된 말이라도 소수자와 약자 차별을 강화한다면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단 입장을 전했다. 과거에 비해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혐오표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학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위해선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포차법)을 발의한 지 15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공청회다. 우리나라의 포차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시작했지만 여러 △전문가△정치인△종교인 등이 포차법 제정에 반대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차법과 포차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알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차법은 개별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차별의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현재 관련 법안 제정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구체적인 내용의 포차법을 제정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모든 회원국에 포차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유엔(UN)은 우리나라에 포차법 제정을 10차례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포차법 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예고했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져서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에선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차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로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지난 2월에도 문재인 우리나라 제19대 대통령이 임기 내에 포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임기가 끝난 현시점까지 해당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크단 이유로 차별금지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엔 공적 영역에서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단기간근로자 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장애인 차별금지법처럼 △고용△성별△장애인 등 각각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 반면 포차법은 △나이△성적 지향성△성 정체성△출신 국가와 지역△학력 등 더 큰 범위에서 이뤄지는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모든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고용△공적 서비스의 제공△교육△재화의 공급 등 공적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하고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차법이 제정된다면 특정한 성별만 가능한 직무 외의 고용에서 성별 제한을 두거나 귀금속업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예물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차별로 판단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난항을 겪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포차법 제정의 찬성 측은 법 제정을 통해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인 평등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단 입장이다. 홍성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이하 홍 교수는)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평등을 지향하고 있단 점을 확인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승의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유 교수는) "포차법은 우리나라 평등법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며 평등 실현을 위한 포차법 제정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엔 모든 이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기에 포차법 제정은 과잉 입법이란 지적도 존재한다. 실제로 해당 헌법 조항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성별△종교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홍 교수는 이런 지적에 대해 "헌법에서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 교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미처 담지 못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포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포차법 제정의 반대 측은 해당 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려는 포차법이 외국에선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과도하게 담고 있던 여론이 존재한다. 타 국가의 포차법은 대부분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만을 금지한다. 실제로 △미국△영국△유럽연합△캐나다의 차별금지법엔 고용 형태와 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포차법엔 성별과 종교 이외에도 고용형태와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에 포차법 제정에 따른 역차별이 존재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교 졸업생의 임금차이를 과연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하다"며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포차법 제정에 따른 개인의 발언권 규제 또한 우려 사항으로 지적받는다. 현재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포차법엔 '△광고△방송△신문기사의 △공급△



▲국회 강당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출처: 노컷뉴스)

이용△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단 여론이 존재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포차법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보도는 허용되지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규제의 대상이다"며 "차별의 개념 또한 추상적이기에 처벌 시 유무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포차법의 경우엔 차별적인 발언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야 할 방향

모두가 동의하는 포차법 제정을 위해 찬반 양측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차법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며 "공청회를 계기로 이런 소통의 노

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포차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청회 진출인을 추천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청회 강행이다"고 비판하며 포차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정치인의 행보를 비판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정치인은 자신의 소임인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정치인이 특정 종교 단체의 신념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법 제정에 의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효성을 갖는 포차법의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국적△성 정체성△인종△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행하는 언어폭력과 편파적인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헤이트 스피치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포차법을 제정한다면 현행 법체계와 비교했을 때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영국△캐나다 등의 국가는 포차법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받는다. 해당 국가는 '모든 개인은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국적△성적 지향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숙박△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동일한 가치의 업무에 따른 동등한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실제로 캐나다에선 해당 법 제정 이후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 전투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신학대학교에 지원한 동성애자 학생의 입학을 불허할 수 없게 됐다. 최영에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에선 포차법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었음에도 끝내 법 제정에 성공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접점을 찾겠다"고 전했다.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포차법 제정을 위한 세 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해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경기△광주△전남△전북△세주를 뺀 12곳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 14곳에서 승리한 지 4년 만에 전면 교체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지선의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다. 이는 2002년에 기록한 48.9%에 이어 역대 지선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사회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이날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한국은행,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금리 인상해

지난달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4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p 인상했다.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가 정점에 다다랐고 고물가 현상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우려돼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 원숭이두창 전 세계 확진자 550명 돌파해

지난 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재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하며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이래 △독일△스페인△캐나다△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병국에 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안보 프레임워크 출범, 향후 세계 질서의 모습은?

지난해 10월 27일 조 바이든(이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안보 프레임워크(이하 IPEF)에 대한 첫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우리나라△일본△호주 등을 포함한 14개국으로 이뤄진 IPE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4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IPEF가 역내 협력과 평화 기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강준영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를 만나 IPEF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강준영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Q1.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 개국이 동참한 IPE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IPEF란 무엇인가요?

IPF는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동맹국을 모아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시스템 구축과 미국 주도의 기술 표준 규범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아시아 경제 통합 전략입니다. IPF는 △경제 인프라 구축△공정한 세계 무역△국제 공급망 위기 해결△노동 분야 표준화△디지털 경제 기술에 대한 규범 정립△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의무 사용량 증가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참여국과 합의해 지역 내 확대하고 조직적인 무역 교류를 추구하죠. 다만 다음 해 11월까지 각 참여국 간 협상이 진행돼 구체적 규범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의 경제 협력체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Q1-1. IPEF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IPEF 출범 배경엔 미국과 중국의(이하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있었습니다. IPEF의 뿌리는 버락 오바마(이하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체결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는 지난 2005년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만든 협정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행정부 땐 TPP로는 중국을 견제하기에 부족하며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인프라공급망 재편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조항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17년 TPP를 탈퇴했습니다. 미국의 탈퇴 후 지난 2018년 TPP는 이름을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으로 변경했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엔 TPP나 CPTPP 같은 기존 경제 협정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경제 협정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봅니다.

Q1-2. IPEF와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PEF는 관세 철폐가 목적인 전통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규범을 만드는 복수 협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IPEF는 국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협정을 맺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FTA는 기존의 참여국이 무역협정을 구축하고 이는 각각 의회를 거쳐 발효되죠. IPEF는 러시아와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규범 정립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죠.

Q2.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지역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선 △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중국△중앙아시아 간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확장주의적 외교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외교 전략이 충돌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국 △호주로 이뤄진 3자 안보 동맹체인 오키스(AUKUS)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한 비공식 안보 회의체인 쿼드(Quad)가 출범하며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충돌이 격화됐어요. 인·태 지역에서 미국은 자국 주도의 안보 강화를 강조하고 경제 인프라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인·태 국가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상황이라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Q3. 지난달 19일 존 덩 대만 행정원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겸 정무위원은 미국과의 화상 회담에서 대만을 IPEF의 정회원으로 초청해 달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의 IPEF 가입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대만의 IPEF 참여가 중국 대륙과 △미카오△대만△홍콩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나라이며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대만의 IPEF 가입을 부정했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대만이 IPEF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이 중국 기술 견제의 핵심으로 삼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른 형태로 대만과의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Q4. 중국은 IPEF 출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IPDF 출범에 대해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서비스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시장을 보유한 자국을 배제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경제 문제를 무기·정치화하고 상품 교역을 미국식 가치관에 따라 평가하는 건 기본적인 경제 규율에 위배되고 자유주의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 주장했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늘려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Q5. IPEF의 출범이후 미·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미·중 관계는 IPEF뿐만 아니라 전 무역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어 앞으로 두 나라 간의 긴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를 만들고자 군사적으로 오키나와와 쿼드, 경제적으로 IPEF를 중국 포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PEF는 아직 정확한 규범이 없기에 중국은 직접적인 대응보단 남태평양 순방과 같은 우회적인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죠.

Q6. IPEF 출범에 참여한 국가의 GDP는 총 34조 6,000억 달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IPEF 참여국과의 무역 규모는 3,89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IPEF가 세계 경제에 끼칠 효과는 무엇인가요?

IPEF 출범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의 배제와 참여국의
 △세계 공급망 재편 △산업업전환 △자유무역 △탈탄소 전환에 기반한 축적체
 제의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참가국에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
 하는 데 반해 관세 인하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미국 내에선 IPEF의
 미래가 위태롭단 우려가 존재하죠. 만약 △물류난 △원자재 가격 불안정 △
 핵심 품목 수급 교란 등 단기 공급망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 회복을 달성하는 데 각국의 협力が 잘 이뤄진다면 긍정
 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풍부한 노동
 력 △우리나라의 제조·활용 기술 △호주의 풍부한 자원 간 상호보완적 공급
 망이 형성될 경우 세계 경제에 긍정적 기여가 예상됩니다.

Q6-1. IPEF 출범이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IPEF는 국가 간 공급망 협력에 집중한다 점에서 세계 경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큼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IPEF 동참으로 수출입 비중이 40% 인팍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역과 긴밀한 공급망 동맹을 구축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른 참여국과의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IPEF가 △공급망△디지털 경제△청정에너지 등을 다루는 만큼 기존 FTA의 틀을 벗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강점이 부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중국은 세계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IPEF에 가입한 우리나라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본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힘쓰며 누구도 대신해나와 상관없이 다양한 국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무풍 AIRDESIGN PROJECT
무풍에어디자인 프로젝트

**사계절 내내, 공간에 맞춰
무풍으로 에어를 디자인하다**

봄에는 살균 청정 폭염에는 냉방 장마철에는 제습 쌀쌀해지면 체온풍까지

BESPOKE 무풍에어컨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무풍에어컨 갤러리

무풍 시스템에어컨

무풍에어컨 갤러리 체온풍

SAMSUNG

가전을 나답게.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kill Air)으로 정의합니다. * 청정 기능 지원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체온풍 모드 지원은 일부 제품에 한합니다. * 살균 시험 세균: 대장균(Escherichia coli),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직업으로서의 편집장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삶이 단기간에 급격히 빠지는 체질이다. 압박감 속에서 허우적 대며 어영부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이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그랬다. 감옥 같던 훈련소에서 한 달을 보내던 22살의 봄에도 마찬가지였다. 편집장을 맡고 첫 마감이 끝난 후 채증계에 올라가 보니 정확히 6킬로그램이 빠져있었다. 처음 맡은 편집장 자리는 생각보다 부담이 심했다. 학보사의 일정은 회의 주와 마감 주를 포함해 2주 단위로 운영되는데 2주 내내 기사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어야 했다. 주말엔 못다 한 수정작업과 추가적인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 호를 어쭈어쭈 마무리하면 급세 다음 호 회의와 마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마감이 끝난 후 직업이 주는 압박감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움과 후회가 가장 많이 남는다. 처음 편집장이 됐을 때 외대학보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었다. 편집장으로서의 사명감은 무엇인지, 외대학보를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학내 언론 기구로서 외대학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지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하자고 다짐했다. 대학 언론으로서 타 학교 언론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싶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에 급급해 위와 같은 고민이 미진하진 않았는지, 외대학보를 위한 삶이 아닌 외대학보에 의한 삶이 아니었는지 고민해보게 된다.

이번 학기는 유독 돌발 상황이 많았다. 처음 겪는 상황들 속에서 당황도 하고 나름대로 불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편집장의 말을 잘 따라준 학보사 기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좀 더 친근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104기 기자들에게 미안하다. 한 호를 거듭할수록 내날이 기사 쓰는 실력이 높아가는 104기 기자들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학보를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차장기자로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103기 기자들에겐 고마운 마음이 크다. 103기 기자들이 이끌어 갈 다음 학기의 외대학보는 이번 학기보다 발전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혼자서 고군분투했을 부장기자 채빈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외대학보가 끝난 후 하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길 바랄 뿐이다.

편집장 자리에서 있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많이 배웠다. 이제 편집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진짜 직업을 구해야 할 때가 왔다. 험난한 여정이 될 테지만 외대학보에서의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되는 때가 올 거라 믿는다. 20대의 끝자락에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도와준 외대학보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펼쳐질 각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힘을 얻는 시간이 선물처럼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정봉비 편집장

[책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

고통스러울수록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있다. 아픈 역사가 그렇다. 책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이하 43 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이 책은 △소설가 ‘경하’△인선’△인선의 어머니 ‘정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경하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소설을 쓰기 위해 관련 자료들에 매몰돼 살아가고 매일 밤 악몽을 꾸며 힘들어한다. 그러던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친구 인선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서 인선과 그녀의 가족들이 사실 43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을 알게 된다.

43사건은 1943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를 포함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과 미군정 사이의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0년대 후반 당시 제주도의 상황은 해방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이 점차 무너지고 미군정 당국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미국정책의 실패△실직난△생필품 부족△전염병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제주도민들은 반미 사상에 동조했고 7만 명 가까이 되는 제주도민이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에 가입하게 된다. 43사건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으며 2만 5,000명에서 3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정심은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고 언니와 단둘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녀는 오빠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43사건 속에 머무르며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고통 속에서 방황한다. 43사건의 유가족은 정심과 같이 끝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가족과 처음 가본 제주도는 내 기억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우연히 43사건을 다룬 또 다른 책인 ‘순이 삼촌’을 읽고 나서 제주도의 숨겨진 아픔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됐다. 너무나 참혹한 과거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제주도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달라졌다. 여전히 제주도는 예쁘고 아늑한 섬이지만 그 안 깊숙한 곳에선 슬픔이 느껴진다.

책의 저자인 ‘한강’은 작가의 말에서 이 책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하가 인선의 앵무새 ‘아마’를 살리기 위해 눈 오는 산길을 해낸 장면△인선이 전쟁 후 어머니 정심의 트라우마를 견디며 옆을 지킨 장면△정심이 오빠의 시체를 찾기 위해 노력해온 나날들 등 책 속의 모든 장면은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표현할 수 없다. 모든 만남의 끝은 작별이기에 우리 삶아며 여러 번의 작별을 거친다. 하지만 때론 작별을 마루고 미완성인 상태로 남겨둬야 할 때가 있다. 43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한강 작가가 그랬듯 우리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과 작별하지 않고 기억을 온존하기 위해 애쓰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고]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퍼붓는 악마가 되길

뉴욕 최고의 잡지 회사인 ‘런웨이(Runway)’에 입사한 ‘안드리아’에게겐 빛나는 옷과 화려한 모델이 가득한 회사가 낯설게 느껴진다. 그녀는 기자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을 쌓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와 전혀 상관없는 런웨이의 비서에 자원해 합격한다. 하지만 그녀의 상사인 편집장 ‘미란다’는 능력 있지만 까다로운 성격으로 패션계에서 유명했다. 미란다는 안드리아에게 막대한 양의 일을 지시했고 안드리아는 쉽게 지치고 만다. 직장 동료인 ‘나이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이 패션 업계를 과소평가했으며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간다. 안드리아의 일이 바빠지고 유능해질수록 그녀가 △가족△남자친구△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든다. 업무능숙히 소화하게 된 안드리아를 본 미란다는 그녀가 자신과 매우 닮았다고 얘기하며 본인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미란다 역시 안드리아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암시한다. 안드리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꿈꿔왔던 길을 찾아 떠난다.

10대의 내가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땐 그저 명품이 가득한 패션 회사에 취직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공원에서 패션 화보를 찍는 모습△의류 창고에서 옷을 빌릴 수 있는 혜택△패션쇼에서 유명인사들과 나누는 대화 등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영화를 보는 내 관점은 많이 달라졌다. 가장 주의 깊게 보게 된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다. 미란다와 안드리아는 다른 직업이지만 회사 내 같은 부사에서 성실히 일한다. 하지만 미란다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반면 안드리아는 자신이 꿈꿔왔던 분야와 동떨어진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란다가 안드리아에게 해준 조언은 안드리아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옆에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에 한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안드리아가 본래의 꿈을 찾는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미란다와 안드리아는 함께 일하진 않게 됐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진 분야에서 활동하게 됐단 점이 인상 깊다.

한국경영자총회가 △M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MZ세대가 생각하는 관참은 일자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워라벨’△‘수도권 지역’△‘연봉 3,000만 원대’가 주요 조건으로 꼽혔다. 즉 현재 MZ세대는 일에 대한 자신의 열정보단 일이 주는 실질적 이득에 관심을 두고 있던 뜻이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차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순 없다. 그러나 실리적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MZ세대가 안타까운 동시에 미란다처럼 자신이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면 아낌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자신이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열정적인 악마가 될 수 있길 바란다.

*MZ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millennial)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1068호 학보를 읽고

우리 학교에 부는 새로운 바람

기숙사에서선 다양한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그 중 특히 택배 도난 사고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3면에선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기숙사 흡스돔(Hufs Dom)에서 발생한 택배 도난 사고를 다뤘다. 본 기사에선 우리학교의 3개 기숙사 △국제학사△글로벌홀(Global Hall)△흡스돔의 기숙사별 택배 보관 방식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 기숙사 모두 택배가 체계 없이 보관돼 있고 택배 수령 절차가 따로 없는 점이 문제였다. 누군가 택배를 훔치려고 결심하면 훔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이다. 흡스돔에 1년간 거주했던 내 경험에 비춰 봤을 때 택배를 찾기 위해 다른 학생의 택배를 들추고 옮기는 과정에서 택배가 섞여 본인의 택배를 찾기 힘들어지는 문제도 빈번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강대학교처럼 보안 담당 경비원이 택배 보관 장소를 근처에 상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인건비가 많이 든단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처럼 택배 사별로 구역을 나눠 보관하는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숙사 내엔 분가와 거리가 멀어 택배를 꼭 이용해야 하는 학우가 다수인 만큼 학교 측은 택배 도난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면에 실린 ‘2022 대동제 #Spring cooler’에 대한 기사 역시 이목을 끌었다. 이번 기사는 3년 만에 대동으로 진행된 축제를 담았던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각 학과의 특

색을 담은 음식과 프로그램은 본 축제에 활기를 더했으며 학생들의 공연은 열띤 박수를 받았다. 백년관 잔디 구장에서 열린 △세계민속문화축전△싸이△보라미뮤의 공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지난 3년간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우리학교 학생들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 위해 글캠을 방문하면서 양 캠퍼스 간 화합도 도모됐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글캠 총학생회장단 구성원이 대동제를 경험해본 적이 없었음에도 최대한 많은 학생이 축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점이 인상 깊었다. 다음 대동제도 이번 행사처럼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

대동제를 시작으로 우리학교엔 대면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며 줄곧 비대면 강의와 행사를 경험했던 ‘코로나 학반’은 이번 기획 기사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아쉬움과 대면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비대면 강의가 진행될 때 수업 준비 시간이 단축된단 점과 통학 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었던 점은 크게 공감됐다. 나 역시 대동으로 전환된 후 통학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돼 코로나 학반은 비로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많은 학생이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한 채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

강승희(서양어 · 노어과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68호 학보를 읽고

하나 된 목소리를 내며

초록의 빛깔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학교 인파으로 축제를 비롯한 여러 대면 행사가 늘어나며 학생들의 활기찬 예전의 빛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이 대동으로 변화된 만큼 그 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1068호는 대동으로 전환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다뤘다.

3면에선 우리학교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기숙사 택배 도난 사고에 대해 다뤘다. 택배 도난 우려는 과거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사건이 공문화된 사례는 처음이었다. 이에 많은 학생이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무안 택배함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학교 측에선 보관 방식이 미땅치 않고 택배의 양도 적정 보관량을 넘어가기에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쉬운 점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도 흡스돔(Hufs Dom) 학사운영팀장을 비롯한 기숙사 관리팀은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단언밖에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숙사 택배 문제에 대해 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만큼 우리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 발견이 필요한 사점이다.

4면은 지난달에 진행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대동 축제 2022 대동제 #Spring cooler(이하 대동제)를 다룬 기사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처음 열린 전면 대면 대동제인 만큼 많은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각 학과별 체험 부스△노래 동아리 해무리의 버스킹 공연△세계민속문화축전△총학생회△XFBX가요제 흡스 청춘 페스티벌을 즐겼다. 기사에 △버스킹 참여자△축제준비위원회△축제에 참여한 학생 모두의 인터뷰가 담겨 축제 현장에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글캠 총학생회가 이번 축제를 성공

김현익(공과 · 컴전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적으로 마쳤다 고 밝힌 만큼 이어지는 대면 축제들도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5면에선 2명의 양 캠퍼스 2학년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동수업 활성화 이후 달라진 대학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비대면 학기 동안의 장단점과 대면 전환 이후의 장단점이 인터뷰를 통해 실감나게 드러났던 것 같다. 특히 학회와 같은 대면 모임에서 동기 및 후배를 만나며 이제야 대학 생활이 실감났단 인터뷰를 읽으며 마음이 뿌듯했다. 그러나 벌써 3학년이 돼 취업 준비를 앞둔단 말이 안타까웠다. 2학년이 남는 시간 동안 더욱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

7면에 이번 달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에 대한 기사가 위치했다. 이번 지선은 △교육△사·도지사△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모두 진행된 가운데 최종 50%의 투표율을 기록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실시된 제22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국민의 역할이 우세한 득표율을 거뒀다. 지난 제22대 대선부터 지속된 양당의 무분별한 상대 후보자 비방과 후보자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이번 지선이 지난 지선보다 낮은 투표율을 거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순간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하는 만큼 대학생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중한 한 표를 신사했길 바란다.

대학생은 과거부터 사회 변화를 주도하던 민주 사회의 구성원이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투쟁하는 동시에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냈기에 그 힘은 막대했다. 하나 되어 축제를 즐겼던 학생들이 지선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생길 사회적 문제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



국 · 부장 고정칼럼

변화의 힘

인간의 정신적 충격은 육체적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언어의 위력은 강력하고 좋지 않은 말일수록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대응할 근거가 없지 않지만 여전히 혐오표현이 잘못된 행위임을 규정하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 혐오표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은 대학이란 실질적 삶의 공간을 배경으로 운영되던 점과 이용자가 재학생으로 제한되던 점에서 혐오표현을 접할 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해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우리학교 에타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생과 글로벌 캠퍼스(이하 글캠) 학생이 서로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양 캠퍼스 간 입학 성적의 차이를 이유로 설캠 학생이 글캠 학생을 향해 '글퀴'와 '기생충' 등 무분별한 혐오표현을 일삼는다. 외대학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는 우리학교 내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해 '엄밀한 가해자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익명 커뮤니티란 명목을 지키며 에타 운영자와 우리학교 측이 힘을 합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변화를 주기 위해선 누군가는 그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3월 외대학보 1053호엔 장애 학생이 캠퍼스 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

워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내용을 다뤘다. 당시 우리학교엔 △보도블록△주차장△화장실 등을 법정 설치 비율 이상으로 표준을 지켜 설치했지만 장애 학생의 거동에 가장 필요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미흡했다. 이번 해 5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시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상 속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번 1069호엔 배리어 프리를 위해 우리학교가 노력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지난해 12월 설캠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생들의 입장을 수용해 가장 많은 수업이 진행되는 사회과학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글캠은 이번 해 중으로 교양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학교를 위해 변화의 목소리를 외친 학생과 그 의견을 반영해 준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여전히 글캠의 저상버스 부재와 급격한 경사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리를 다친 일반 학생에게도 통학의 어려움을 준다. 하루빨리 배리어 프리가 이뤄진 통학 시설과 건물이 마련돼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다음 해 발행될 학보에도 새로운 변화가 담긴 기사를 볼 수 있길 바란다.

박채빈 부장 02chaebin@hufs.ac.kr



식량가격의 급등과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

현재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긴장관계는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유가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초 배럴당 47달러였던 유가는 현재 11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단기간에 내려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향후 1~2년간은 고물가의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식량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곡물가격은 불안했다. 팬데믹의 여파로 일부 해운 물류가 마비되고, 주요 생산 지역의 △가뭄△산불△홍수 등이 잦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곡물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곡창지대이다. 양국이 전 세계 곡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밀 27% △보리 23%△해바라기유 53%이다. 전쟁 직후 한 달 동안 밀 가격은 21%, 보리 가격은 33% 상승했다. 곡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 가격도 급등했다.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비료 원료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식량 가격 폭등 현상이 단시일 내에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파종 및 생산시기를 놓쳤고, 저장 및 운송 등 물류시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고유가가 지속되는 한 식량가격이 하락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식량위기는 주로 △서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에서 주기적으로 도래했다. 사실 전 세계의 식량생산 능력은 세계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균일하게 잘 배분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반면에 식량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국가 간 정책갈등△급격한 경기변동△자연재해 등으로 물류 교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갈등이 추가적으로 작용했다. 주요 수출국들이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점도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식량위기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현재로선 러시아산 곡물 수입이 많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취약하다. 가령 이집트와 터키는 러시아산 밀의 최대 수입국이며 △방글라데시△아제르바이잔△이란도 주요 수입국이다. 우크라이나는 농산품 생산의 약 75%를 수출한다. 곡물시장은 특성상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통합되어 있다. 특정 지역의 곡물가격의 변동은 전 세계 곡물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선진국의 경우 높은 곡물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북아프리카△서남아시아△중동 국가들은 식량자급률이 낮다. 소득불평등도 심해서 식량가격이 상승할 경우 많은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는다. 러시아산 밀의 주요 수입국인 튀니지와 이집트를 비롯해 터키, 파키스탄 등에서는 경제난이 고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식량위기가 정치위기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령 2007~2008년의 기간 중 식량가격과 유가가 급등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말 촉발된 '아랍의 봄' 사태는 식량위기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이집트△예멘△튀니지 등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유사한 사태가 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현되었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고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빈곤지역에 큰 문재를 일으키고 있다. 서로가 경제안보에 민감해진 상황에서 각자도생은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갈등의 원인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보건△식량△에너지△환경 관련 의제에 있어 강력한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별 협력 의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은 '의제별 리더십(issue-based leadership)'을 보일 필요가 있다. 우선 식량 부족 문제를 겪는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에 대해 식량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잠시나마 열릴 수 있는 협력의 기회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식량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농자재 지원이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2jbb@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정봉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한줄평...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김상연: 외대학보를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하형: 소중한 사람들과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리나: 외대학보, 나를 돌아볼 수 있던 시간.

박채빈: 일년 반, 소중한 여정의 마침표.

양진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매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양채은: 성장을 통해 정상에 오른 외대학보 기자들, 수고했습니다.

장래산: 다음 학기엔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봉비: 외대학보에서의 1년 반 후회없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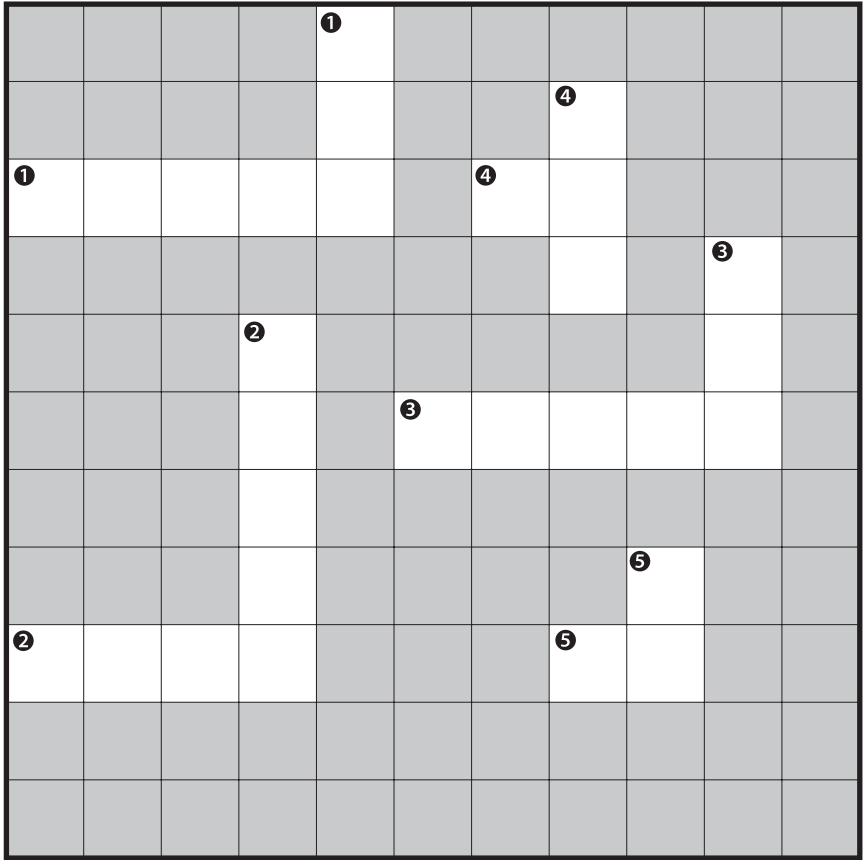
지명원: 지금도 앞으로도 명불허전 원더풀 외대학보.

차승연: 외대학보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비: 오래도록 간직될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영화제가 개최됐다. (1면 참조).
2. 이어 지난해 총회 이후 지금까지의 ○○○○연맹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와 평가를 진행했다. (2면 참조)
3. ○○○○(Barrier Free)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움직임을 뜻한다. (3면 참조)
4. 이어 "현재 실크로드 대학생 연합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의 자문기구로 등록하는 ○○을 진행 중이다" 며 연맹을 비롯해 우리학교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 (2면 참조)
5. 이어 그동안 이에 관련한 요구가 없었다며 "버스 교체엔 많은 ○○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청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고 설명했다. (3면 참조)

세로

1.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학회△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중점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문화상점이문일공월' 에서 진행된다. (2면 참조)
2. 다음 학기에 중점을 두거나 우선으로 계획 중인 활동을 묻는 질문엔 하반기 설캠 축제인 '퀸쿠아트리아 ○○○○' 라 답했다. (4면 참조)
3. ○○○연합회가 진행한 동아리 박람회(이하 박람회)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4면 참조)
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며 "공청회를 계기로 이런 소통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고 전했다. (9면 참조)
5. 해당 국가는 "모든 개인은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는 원칙에 의거해 △국적△성적 지향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숙박△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동일한 가치의 업무에 따른 동등한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8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임대근 교수를 만나다

△기생충△오징어게임△케이팝(K-pop) 등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임대근(동양어·중국어 89) 우리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이하 임 교수)는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 영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 문화 전문가이다. 이외에도 임 교수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회장과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문화 교류 및 연구에 힘쓰고 있는 임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입학한 1989년도는 노태우 정부 시기였습니다. 당시 냉전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죠.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완화와 교류 재개를 위해 북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가 많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 중국어과에 진학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한자를 좋아해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도 중국어과 진학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Q2. 기억에 남는 대학 시절 활동이 있나요?

‘중국현대문학반’이란 연구학회를 직접 만들고 2년간 활동하며 학술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우리학교 중국어과에선 중국의 고전문학을 중점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전 현대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부생에 불과했지만 루쉰과 같은 중국 현대문학 작가의 작품을 학우들과 같이 읽고 연구하며 의견을 나눈 경험은 매우 의미 있었어요.

또한 당시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눠줬던 경험은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Q3.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해 중국 영화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중화권 국가로 유학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 4학년 여름방학을 맞았던 1992년 8월 24일에 한·중 수교가 이뤄졌어요. 이에 자연스럽게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대만과는 단교가 됐죠. 한·중 수교 이전엔 대만이 우리나라 유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기에 많은 학생이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수교 이후 이 혜택이 전부 사라졌어요. 중국 역시 수교가 맺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학을 가기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죠. 이에 해외 유학을 포기하고 우리학교의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석사 논문은 중국의 현대문학을 주제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박사 과정 중이던 21세기 전후로 문학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단 내용의 ‘문학의 죽음’ 담론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영화 연구자로 전향했어요. 저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Q3-1. 중국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중국 문화를 얘기할 때 사회주의의 모습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 역사가 깊고 다양한 민족이 사는 국가예요. 그래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인 요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 요소들이 △도교△불교△유교 등 여러 종교와 어우러져 있어 사상적으로 깊이 있고 풍요로운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국은 풍요로운 문화적 자원을 이용해 현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Q3-2.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이하 한·중) 간의 문화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중 문화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견제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중국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표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따져보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해요. 중국은 보통 한·중 문화 갈등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제한하거나 타격을 가하는 등의 제도적인 방식을 사용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문화 갈등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문화 갈등은 미국과 중국 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우리나라는 우방국인 미국을 택하는 편이에요. 이런 영향 때문에 한·중 문화 갈등이 깊어진다고도 설명할 수 있죠.

지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를 폐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10년 내외로 다시 국제사회에 자국을 개방할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정치적으로 중국과 등을 돌리고 살 수 없는 관계이기에 냉철한 사실 관계 판단과 국제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한·중 문화 갈등에 명석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Q4. 지난 4월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도서 ‘착한 중국 나쁜 차이나’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국 문화를 상세히 다룬 책을 발간하는 게 오랜 목표였어요. 그런 와중에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YTN에서 진행된 라디오 프로그램 ‘3분 차이나’에 출연해 청취자들에게 전달했던 중국 관련 정보들이 많이 축적됐습니다. 이때 작성한 원고를 폐기하기 아까워 책으로 발간한 게 ‘착한 중국 나쁜 차이나’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반감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Q5. 지난해 12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에선 주로 어떤 연구가 이뤄지고 있나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K-콘텐츠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학술의 장입니다. 문화콘텐츠를 단순히 산업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술△스토리텔링△이론△정책△철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Q5-1.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회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무엇인가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회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가 해외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기생충△오징어게임△케이팝(K-pop) 등의 유행으로 현재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많은 문화콘텐츠 소비자가 우리나라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용자의

K-콘텐츠 수용 과정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전하며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어요.

Q6.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이예요. 항상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기초콘텐츠가 잘 지원받고 육성돼야 합니다. 기초콘텐츠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변에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만 기초콘텐츠에 이미지 기술이 결합한 △게임△영화△웹드라마 같은 응용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응용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축제나 테마파크와 같이 이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합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Q7. 문화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중 말고 싶은 직군을 선택한 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엔 △기술자△기획자△생산자△이론가△정책 관리자 등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직군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문화콘텐츠는 결국 스토리텔링이 핵심인 분야이기 때문에 소설과 영화를 많이 감상해 보길 권해요. 또한 이 산업은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에너지가 쉽게 소진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 일을 해볼 가치가 있단 생각이 들면 주저 없이 뛰어들길 바랍니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